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9-14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헌신과 나눔	결단의 찬송 찬송가 115장 / 기쁘다 구주 오셨네 (통일찬송 115장) 봉 헌 / 박진성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죽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오정은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민수기 2:1-34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굳게 다져야 한다. 초대 교회 당시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살롬(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마라나 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었다. 이런 이사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굳센 믿음을 위해 격려했을 것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

"내 사모하는 주"를 고대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도 마다 않는 참 성도가 돼야겠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칠 때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임을 깨닫자. 내 선행과 인격이 아니라, 비록 누더기 같더라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깨닫자. 찬양을 부르며 그 같은 열망과 경외심을 회복하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1:17)

한 주간의 기도

"성탄의 기쁨 속에 예수님의 오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참 되게 새기기 원합니다. 나의 옛 사람을 버리는 결단이 있는 성탄, 2020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기대하는 성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 형제, 자매들에게 늘 감사하는 성탄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백인종서 2차 5-8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선교소식

코스타리카 박운숙 선교사 소식

이곳에서는 12월 19-21일 기간 불우하고 위험한 지역들 청소년들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도미니카 캠프때 참석했던 자원 봉사자들과 이곳의 중국인 교회 목사님과 서너 분의 장년부 성도들도 함께 준비 중인데 감사하게 도미니카 캠프 후 남은 재정으로 곳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대부분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15-20 세 청소년입니다. 섬김의 교회에서 현금해 주신 재정도 캠프와 사역 마무리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돌아오기 이틀 전부터 허리가 갑작스럽게 더 안 좋아져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수술 후 목디스크까지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현지에서 한국보다 비싸게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운동하면서 관리중인데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통증으로 계속적인 도전입니다. 위장문제로 후두염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한국에 갔었는데 여전히 후두염이 말썽을 피웁니다.

개인적인 소식을 보냅니다. 주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결혼할 목사님과 저를 강권하여 만나게 하신 것이라 믿고 준비 중입니다. 내년 4월 18일 목사님이 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하신 서울의 교회에서 결혼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도미니카 캠프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 안보내실 듯합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하지만 제게는 한국이 선교지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청년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할 목사님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부목사이신데 선교사 재교육 훈련센터로 그 교회에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작은 복지재단의 '사랑의 짬뽕' 프로젝트로 섬기면서 연결된 전과자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사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저희 둘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도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제 몸 먼저 추스리라고 안전지대에 두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는 2 월 4 일 떠나게 됩니다. 시카고에서의 감사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꼭 다시 뵙고 싶어요. 계속 섬김의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롬!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성탄감사주일**입니다.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2. **성탄축하 모임을 24 일 저녁 7:00 부터** 교회에서 가집니다. 저녁찬교 후, 성탄감사 찬양과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3. 12 월은 **결산과 예산과 사역 점검/계획**의 기간입니다. 영적성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섬김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4.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6. 노환과 지병으로 투병중인 분들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과 이웃들)의 조속한 회복,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7. 연말 연시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2월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 12.31 송구영신예배, 성찬예식 & Oikos 셀모임
▶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뷰와 재정비

♥**성인** **축하**♥ 오준하(12/2) 김훈태(12/19) 박다현(12/23) 홍은성(12/26) 유덕하(12/28) 최선윤(12/3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주일예배기도	12/22	12/29	1/5	1/12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2/27	1/3	1/10	1/17
	오정은집사	구 민집사	최선윤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12/22	12/29	1/5	1/12
	박진성집사/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1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 / 요한1서 2:12-17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해야 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복음을 기다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섬김과 사랑의 손을 내밀며,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단 음식에만 목매다 굶어 죽는 갈매기들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들 / 요한복음 1:9-14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심판,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감격을 기억은 성탄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들 / 요한복음 1:9-14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10 절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한다. 이스라엘은 민족이라는 집단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은 고사하고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심지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다. 또한 목자들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저주 대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즉,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공생애 전 예수님은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다. 영광은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구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탄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입은 영적인 존재답게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2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왜 성탄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진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길에 내가 밤사에 잡히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December 22, 2019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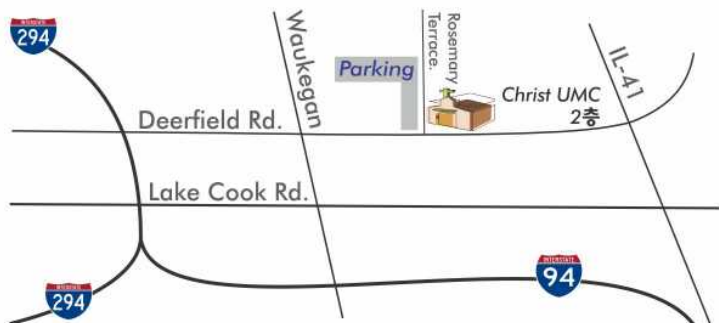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나눔의 달
성탄감사주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